

SKT, '초엿지' 기술로 데이터 지연시간 60% 줄인다



고객최적점 기지국 단에 MEC 도입
데이터전송 과정 4→1단계로 줄여

5GX MEC 기술 활용 위치엔플레이
슈팅게임 초고속·초저지연 환경 제공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기지국 단에 '모바일엿지컴퓨팅(MEC)' 적용이 가능한 '초(超)엿지' 기술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13일 서울 을지로 삼화빌딩에서 브리핑을 통해 5G 시대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솔루션인 '5GX MEC'를 공개하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통신 대비 최대 60%까지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

5G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MEC은 고객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전송 기술을 줄이는



SK텔레콤 이강원 클라우드랩스장이 '5GX MEC'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기술이다. 전송 기술이 줄어들면 초저지연 서비스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개발한 초엿지 기술은 고객 최적점인 기지국 단에 MEC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전송 과정은 통상 스마트폰-기지국-교환국-인터넷망-데이터센터 등 4단계를 거치는데 이를 스마트폰-기지국 과정인 1 단계로 줄여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기존 통신 대비 최대 60%까지 향상된 초저지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특히 'MEC' 센터와 연동 없이 기존 5G 기지국만으로 초저지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보안이 민감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초엿지 기술을

각종 5G 서비스 테스트베드가 위치한 분당 5G 클러스터에 연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초엿지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게임 방송·플레이 공유 플랫폼 '워치엔플레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워치엔플레이는 5GX MEC 기술을 활용, 사용자가 관전 모드와 플레이 모드를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 방송 시청 중 게임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찰나에 승부가 결정되는 슈팅게임의 경우 초고속·초저지연 통신 환경에서 끊김 없는 플레이 환경과 조작권 주고받기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SK텔레콤은 게임사의 게임엔진을 'MEC' 센터와 기지국 단에 배치함으로써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상범 미디어랩스장은 "워치엔플레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게임사 스튜디오들과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갖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5GX MEC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최근 연동

을 위한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향후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해 클라우드 서버를 국내 기지국 혹은 교환국에 설치해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5GX MEC 기반 초저지연 통신 환경과 인공지능(AI), 양자암호, 클라우드 로봇 플랫폼 등 자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5G 신규 서비스 개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전국 5G 주요 거점 지역 총 12개에 'MEC'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5G 생태계 확장 일환으로 이날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분당 소재 SK텔레콤 ICT기술센터에서 5G MEC 해카톤도 개최했다.

SK텔레콤 이강원 클라우드랩스장은 "5G 시대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초엿지' 기술을 개발했다"며 "SK텔레콤은 5G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임과 동시에 '5GX MEC' 플랫폼 개방 등을 통해 5G 생태계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조선 '빅2', 휴가 끝나자마자 파업 준비

현대중

적자 속 '21일 파업 카드' 만지작

대우조선

조합원 92% 찬성 파업 '초읽기'

2주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사 노조는 파업 여부를 두고 아직은 고심하는 입장이지만 임금 및 단체 협상과 관련한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 단행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지주는 이날 노조와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금속노조 총과업이 예정된 오는 21일 파업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앞서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이다.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등 3명은 지난 5월 상경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지부장 등은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 인수·합병



현대중공업 계동사옥(위)과 대우조선해양 사옥

(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도중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조선업계 '빅2' 중 하나인 대우조선은 파업 결정을 뒤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예정된 노조창립기념일 행사가 14일 진행되어서다. 현재 노사는 주2회씩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노조는 지난달 조합원으로 부터 91.97%의 찬성을 받아 파업을 가결했으며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을 획득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정년 연장, 사내 하청직원 처우개선 등 통상적인 요구 외에 회사 매각철회도 사측에 요구했다.

한편 조선3사의 올해 수주실적은 부진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연간 목표대비 수주량은 각각 20%, 33%, 43% 수준으로 그나마 삼성중공업이 가장 나은 수준이지만 모두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모비스, 자율주행 최첨단 센서 상용차 적용

독자개발 중거리 전방 레이더 등
9월부터 국내 상용차 양산 공급
글로벌 안전규제에 선제적 대응

현대모비스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등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최첨단 센서를 상용차에도 본격 적용한다. 이는 승용에서 확보한 능동안전, 편의시스템 첨단 기술을 상용차 제품군에 확대 적용하기 위함이다.

현대모비스는 자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중거리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센서를 국내 상용차에 오는 9월부터 양산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트럭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용차에 이와 같은 첨단 센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는 모두 주요 하드웨어와 핵심 알고리즘을 현대모비스가 자체 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 첨단부품 수주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독자 센서는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을 구현한다. 앞 차와 적정 거리를 계산



현대모비스 연구원이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 적용한 독자 센서를 상용 테스트 카에서 시험하고 있다.

해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차속을 줄여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통해 대형 추돌 사고 예방 등 상용차 안전을 강화하고, 국산 상용차의 본격적인 첨단화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국산 상용차종에 독자 센서를 수주한 것은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내재화하면서 신뢰성과 가격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가 상용차에 공급하는 전방 카메라 센서는 다중 연산 장치를 적용해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석하는 정보 처리 능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중거리 전방 레이더도 상용차 제품

중 최장거리 수준인 170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근접 거리와 동일 각도에서 여러 대상을 동시에 식별하는 우수한 분해능력과 거리해상도를 갖췄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독자 센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인 상용차 안전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초고속 통신(5G) 기반의 차량 제어 기술과 연계해 물류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무인 화물 트럭' 등 차세대 물류 운송시스템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상용차 능동안전시스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주 확대도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메뉴' 4박5일 시승 이벤트

현대자동차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메뉴 출시를 기념해 4박 5일간의 메뉴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는 응모 고객 중 각 차수별 40명, 총 80명을 선정해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고 더불어 인제스피디움에서 진행

되는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의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초대권(레벨 1, 1매)을 증정한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현대자동차 시승센터 및 영업점,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메뉴를 시승한 뒤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현대차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운전에 대한 이론 교육은 물론 긴급 제동 및 긴급 회피, 슬라럼 주행 등 다양한 드라이빙 스킬을 배우면서 운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